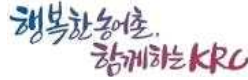


 보 도 자 료 			
보도일시	2023. 2. 8 (수) 10:00	배포일시	2023. 2. 8 (수) 10:00
담당부서	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	책임자	부장 이주현(061-338-5861)
		담당자	대리 손솔아(061-338-5863)

농지은행,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

- 신규사업 추진으로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인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.

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△선임대-후매도사업, △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△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,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,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.

「선임대-후매도사업」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(최장 30년)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,160백만 원,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이다. (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.5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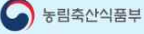
「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」은 공사가 유휴농지, 국·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,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(10~30년)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.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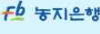
또한 「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」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(연동형비닐온실)*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 과도한 투자 비용

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10년간 장기 임대로 지원한다.

* (지원규모) 6ha(1인당 0.5ha이하, 농지면적 포함), 45억원, (온실형태) 내재해형 연동형 비닐하우스, (내부시설) 환경제어시설, 양액배배시설, 관수시설 등

이병호 사장은 “공사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.”라며 “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
농업의 미래, 청년농에 맞춘!

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대공급합니다.

1 농지 맞춥니다!

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됩니다!



- 농자정비를 통한 임대공급물량 확대
-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제도 상향
- 진입단계 (2→3ha), 성장단계(공공임대: 4→6ha)

2 시설 맞춥니다!

유휴농지가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단지가 됩니다!



- 저활용 농지, 국·공유지 등 매입 후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
- 청년농이 시설물 설치 가능하도록 장기임대 또는 매도
- 임대형 스마트팜, 청년 보금자리 주택과 연계하여 조성

3 제도 맞춥니다!

**먼저 농지를 임차하고 나중에 농지를 매입하세요!
'선임대-후매도' 방식이 전격 도입됩니다!**



- '선임대-후매도' 방식 도입
- 청년농이 희망농지를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'선임대 후매도' 방식 도입
-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 납부,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

4 정보 맞춥니다!

**내가 알고 싶은 정보 속속!
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정보가 확대 제공됩니다.**



www.fbo.or.kr



- 농지 실거래가, 공시지가, 임차료 관련 정보 제공강화
- 국·공유농지 조사 결과 공개